

덴도 쇼기 기물의 시작

덴도의 쇼기 기물 만들기는 덴포(天保) 2 년(1831) 오다(織田) 번이

다카하타(高畠)에서 덴도로 이전함에 따라, 쇼기 기물의 제작 기술도 함께 도입된 것이 시작이라고 추정됩니다. 오다 번에서의 쇼기 기물 만들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, 적어도 다카하타 시대(1767-1831)에는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. 그것이 계속 덴도로 이전한 후에도 이어졌고, 특히 막부 말기의 가로(家老) 요시다 다이하치(吉田大八)(1832-1868)에 의해 무사의 부업으로 적극적으로 장려되어 오늘날 덴도 쇼기의 기초가 다져졌다고 합니다.